

다수준 분석을 통한 경찰신뢰 영향요인 탐색: 지역사회 맥락요인을 중심으로

조준택*

국 | 문 | 요 | 약

그간 경찰신뢰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수행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찰활동의 산출변수나 지역사회의 구조적 맥락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자료를 기반으로 경찰청과 통계청의 지역수준 자료를 결합하여 개인적 특성과 경찰활동 및 지역적 특성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 유대와 집합효능감, 생활만족도는 경찰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무질서 인식과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은 경찰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범죄두려움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만이 경찰신뢰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지역수준 변수에서는 자살률과 공공장소가 경찰신뢰와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자살률의 경우 지역유대와 집합효능감과 경찰신뢰와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또한 경찰신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표현적 요인과 도구적 요인의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외에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0.03.31.1.99>

❖ 주제어 : 경찰신뢰, 지역사회 맥락, 범죄와 무질서, 경찰활동, 다수준 분석

*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안교육센터 교수

I. 서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찰 행사에 참석하여 경찰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언급이 없더라도 경찰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경찰 모두 공감할 것이다.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법집행과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므로 신뢰가 필수적이며(Nix et al., 2015),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해야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신뢰는 매우 중요하다(Kääriäinen, 2007). 예를 들어 시민들이 경찰을 더 많이 신뢰할수록 경찰의 법집행에 더욱 잘 협조하고 범죄 신고가 많아져 경찰의 범죄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Sargeant et al., 2014). 반면,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경찰활동의 정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범죄 신고가 감소함으로써 경찰활동의 효과성도 감소하며, 시민과 경찰의 협력도 저해될 수 있다(Merry et al., 2012).

이처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찰의 신뢰수준은 다른 국가나 기관에 비해서 낮다는 점이 상당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이미정, 2013; 장현석, 2014b; 정보성·이창배, 2018; 황의갑, 2013). 그리하여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호의적이지 않고 경찰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Jang & Hwang, 2014). 실제로 최근 여러 사건사고의 발생과 이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 등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일선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데, 초기 연구에서는 경찰의 업무태도(이상원·송건섭, 2001)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유영현·신성식, 2008)에 초점을 둔 이후 연구모형이 확장되어 도구적 요인과 표현적 요인의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강지현, 2016; 임창호·김영수, 2018; 장현석, 2013; 장현석, 2014a), 최근에는 연구범위도 확장되어 국가간 비교연구가 수행되는 한편(노연상·임창호, 2017; 이병도, 2017; 장현석, 2014b; 황의갑, 2013; 황의갑·한성일, 2016), 국가수

준의 변수를 투입하여 다수준 분석을 수행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정보성·이창배, 2018).

이와 같이 경찰신뢰와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색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Nix et al., 2015), 국내의 경찰신뢰에 관한 연구들은 국외연구들에 비해 주로 개인수준의 변수들에 주목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경찰활동의 성과나 산출변수, 지역사회 환경변수들과 경찰신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연구의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범죄나 무질서의 발생이나 인식 측면을 주로 고려하였다면, 이러한 범죄와 무질서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산출변수들과 지역사회 환경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들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다수준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생각보다 매우 적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경찰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결합하여 경찰성과와 치안환경에 관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여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며,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찰신뢰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가. 경찰신뢰에 대한 논의

신뢰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그 중 Hawdon(2008)은 신뢰를 특정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이 사회적으로 정의된 규범적 기대와 일관된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Hawdon, 2008). 이러한 신뢰는 사회 안에서 개인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무형자산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며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삶의 질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이미정, 2013). Stoutland(2001)는 이러한 신뢰의 개념요소를 의존가능성, 역량, 공유된 가

치와 우선순위, 존중 등 4가지로 구체화하였는데, 이 중 의존가능성과 역량은 성과에 기반한 신뢰이고, 공유된 우선순위와 존중은 과정에 기반한 신뢰로 분류하고 있다(Stoutland, 2001).

경찰신뢰의 정의에 대해서도 국내외 학자들의 여러 논의가 있으며 특히 Sun과 동료들(2013)은 경찰신뢰의 개념을 3가지로 구체화하였는데, 첫 번째는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인식이나 의견이고 두 번째는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태도의 성격을 가지는 만족이나 정당성 인식이며 세 번째는 경찰성과나 활동의 세부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으로서 효과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예시로 들며 개념화하고 있다(Sun et al.,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찰신뢰 개념은 경찰에 대한 태도, 업무만족도, 공정성, 효율성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다는 주장도 있다(Jackson & Sunshine, 2007).

다만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경찰신뢰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개념들이 상호교환적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며(황의갑, 2013), 이에 일부 학자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다면적인 개념으로서 다양한 해석에 열려 있는 복잡한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Jackson & Bradford, 2009).

이와 같이 경찰신뢰는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는 정부신뢰의 개념에 기반하여 경찰신뢰를 국민들의 경찰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경찰활동이 국민이 가진 기대에 부합하여 수행되는지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이수창, 2014). 이러한 경찰신뢰는 최근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범죄발생이나 검거를 통한 경찰활동의 객관적 평가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주관적 평가 지표로서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으며(장현석, 2013), 실제로 경찰관서 평가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되고 있다(황의갑, 2013).

나. 경찰신뢰의 영향요인

1) 도구적 요인

이러한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의 기반이 된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면 먼저 시민들이 범죄예방과 통제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이 경찰에게 있다고 인식하며 경찰활동에 대한 성과가 경찰에 대한 신뢰수준을 결정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경찰을 치안유지의 도구로 인식하는 의미에서 도구적 모형(instrumental model)으로 명명하고 있다(Skogan, 2009).

이 이론에 따르면 경찰활동이 범죄예방과 통제에 효과적이지 못해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의 성과가 미흡한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Reisig & Parks, 2000; Taylor & Lawton, 2012). 이와 관련 가장 대표적인 범죄유형인 살인범죄의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실증연구 결과들도 보고되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Cao et al., 2012; Jang et al., 2010). 즉, 범죄위험이 높아 지역주민의 안전이 중요 관심사인 경우 경찰의 역량이나 성과가 경찰에 대한 신뢰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Tankebe, 2008). 유사한 맥락에서 이러한 범죄발생 요인 외에도 범죄피해나 두려움 요인도 경찰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Nix et al., 2015; Sproot and Doob, 2009).

따라서 경찰은 범죄대응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신뢰할만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Sunshine & Tyler, 2003), 우리나라 경찰도 이러한 도구적 측면에 기반하여 주민들이 신고한 범죄의 검거율을 높임으로써 범죄발생과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통해 경찰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Jang & Hwang, 2014). 이러한 활동은 경찰의 범죄통제에 대한 성과가 좋다면 주민들이 더욱 경찰을 신뢰할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 것이며 정부의 성과이론과도 연결된다(Van Craen & Skogan, 2015). 이러한 경찰전략과 관련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경찰전략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그러한 원인에 대하여 범죄대응으로 인해 증가된 경찰가시성이 주민들에게 지역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지만(Hinkle & Weisburd, 2008), 최근 영국에서는 가시성이 높은 경찰활동이 경찰신뢰를 증진하였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도구적 모형을 뒷받침하였다

(Merry et al., 2012).

2) 표현적 요인

다음으로 영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모형으로서 표현적 모형(expressive model)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나 도덕적 가치의 수호가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Jackson & Bradford, 2009). 이 이론은 지역사회 통합수준이 낮고 무질서가 많으면 시민들은 경찰이 지역사회의 도덕이나 가치를 지키는데 실패하였다고 인식하고 경찰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인다고 설명하며(Merry et al., 2012), 앞서 범죄발생이나 범죄두려움과 같은 도구적 요인들보다 이러한 요인들이 경찰신뢰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Jang & Hwang, 2014). 이러한 표현적 모형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해체 이론, 아노미 이론 등과도 연결된다(임창호·김영수, 2018).

이 이론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맥락적 요인이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와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협력증진, 지역사회의 질서유지가 경찰신뢰에 중요하다고 지적한다(Nix et al., 2015; Ren et al., 2005). 특히 도구적 모형과 비교했을 때 경찰이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는 지역의 무질서 요인이다. 주민들은 지역의 무질서가 증가하면 경찰이 범죄가 아닌 문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이러한 기대와 달리 경찰이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질서유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Reisig & Parks, 2000; Taylor & Lawton, 2012).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따라 무질서가 증가하면 향후 범죄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Wilson & Kelling, 1982), 지역주민들은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에 질서유지를 요구하게 되고 그리하여 무질서에 대한 대응은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되었다(Van Craen & Skogan, 2015). 그리하여 경찰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찰활동을 통해 지역의 질서와 주민의 삶의 질의 수호자로서 역할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이나 집합효능감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Ren et al., 2005). 유사한 맥락에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도

증가할 수 있다(Jang et al. 2010; Sun et al., 2013; Wu & Sun, 2009).

이러한 표현적 요인과 도구적 요인의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들이 상당수 수행되었는데, 국내외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표현적 요인이 도구적 요인에 비해 경찰에 대한 신뢰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로 파악된다(Jang & Hwang, 2014; Merry et al., 2012; Nix et al., 2015; Sun et al., 2013; 장현석, 2014a; 황의갑·한성일, 2016; 황의갑, 2013).

3) 지역사회 환경 요인

이러한 도구적 요인과 표현적 요인과 관련하여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역수준의 환경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역사회 환경요인 중에서 학자들의 관심을 받은 요인들 중 대표적인 요인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주민들의 지역 내 비율(*concentrated disadvantage*)을 들 수 있다. 이 요인은 지역의 경제적 열악함이나 낙후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개별 연구들에서 1) 한부모가정 비율, 2) 실업률, 3) 기초수급자 비율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Lai & Zhao, 2010). 이러한 요인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주민들에게 경찰서비스가 불공정하거나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경찰신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다(Hawdon, 2008). 실제로 상당수 실증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경찰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고 신뢰가 낮으며 법질서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Nix et al., 2015; Reisig & Parks, 2000; Wu & Sun, 2009). 그리하여 경찰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법집행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유의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경찰신뢰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Lai & Zhao, 2010; Nix et al., 2015). 이와 관련,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력이 낮은 열악한 지역에서 치안서비스의 배분적 공정성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Sun et al., 2013).

또한 앞서 언급한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요인으로 공공안전서비스에 대한 비용투자도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관련 Kääriäinen(2007)은 유럽 국가들의 자료를 바탕으

로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공안전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출이 증가할 경우 실제 안전수준이 높아져 주민들의 경찰신뢰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실증연구 결과 투자액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경찰신뢰 수준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공공안전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에 투자되는 비용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불평등으로 인한 범죄발생이나 범죄에 대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Kääriäinen, 2007). 어떻게 보면 다소 모순적인 해석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이민자나 소수인종과 같은 외국인 요인이 있는데, 이와 관련 외국인 거주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아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고(Sargeant et al., 2014), 경찰의 법집행이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내국인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법집행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신뢰가 높지 않다는 견해도 존재한다(Lai & Zhao, 2010; Wu & Sun, 2009). 이와 관련 이민자들과 다른 집단을 비교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범죄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로부터 불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고 비판적 의견이 적어 예상과는 다른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Sun et al., 2013). 한편 국내에서는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 주민들의 경찰신뢰에 경찰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나 법집행의 공정성,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임창호·김영수, 2018).

이외에 경찰신뢰와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지역수준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현적 모형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사회해체이론(Shaw & Mckay, 1942)이나 아노미 이론(Durkheim, 1897) 등과 관련된 변수로서 이혼율이나 자살률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이혼율의 경우 살인을 포함한 범죄발생이나 범죄두려움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박종훈·이경재·이성우, 2018; 정진성·박현호, 2010)이 상당수 존재하여 경찰신뢰와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한편, 자살률의 경우에는 경찰신뢰나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가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국가수준 연구에서 아노미 지수가 높을수록 경찰신뢰가 저하된다는 연구결과(Cao et al., 2012)에 근거하여 탐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시

설이나 장소 요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범죄와 무질서가 빈발한 유흥시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 다중시설의 경우 범죄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상당수 보고된 바 있지만(Dietz, 1997; 배응규·김희재·권경오, 2009; 박현수, 2018), 경찰신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외적으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도구적 범죄관련 요인 중 범죄피해 변수는 일부 연구(Nix et al., 2015)를 제외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Alalehto & Larsson, 2016; Kääriäinen, 2007; Lai & Zhao, 2010; Ren et al., 2005; Sun et al., 2013; Van Craen & Skogan, 2015; 강지현, 2016; 장현석, 2014a; 정보성·이창배, 2018; 황의갑·한성일, 2016). 범죄두려움도 일부 연구들(Lai & Zhao, 2010; Ren et al., 2005; Wu & Sun, 2009; 임창호·김영수, 2018)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연구에서 경찰신뢰와 부적 관계를 보고하였다(Jang & Hwang, 2014; Kääriäinen, 2007; Merry et al., 2012; Sun et al., 2013; Van Craen & Skogan, 2015; 강지현, 2016; 장현석, 2014a). 한편, 범죄발생 변수를 분석에 투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범죄율이 경찰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Cao et al., 2012; Jang et al., 2010; Reisig & Parks, 2000),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분석결과(Lai & Zhao, 2010; Nix et al., 2015; 한보영·최재용·이윤호, 2014)가 혼재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범죄요인에 대응하는 경찰활동 요인과 경찰신뢰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상당수 연구결과에서 주민들이 경찰의 역량이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경찰신뢰가 증가하였다(Alalehto & Larsson, 2016; Lai & Zhao, 2010; Sargeant et al., 2014; Wu & Sun, 2009; 임창호·김영수, 2018). 한편, 경찰의 구체적인 활동 측면에서 범죄검거율이 높을수록 경찰신뢰가 증가한 반면(한보영·최재용·이윤호, 2014), 경찰이 교통위반 등에 통고처분을 많이 수행할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주민들이 경찰이 범죄와 같은 주요

한 문제에 대응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을 단속한 것에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Ren et al., 2005).

또한 표현적 요인의 경우 국내외를 통틀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지역의 무질서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응집이나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였다(Jang et al, 2010; Jang & Hwang, 2014; Merry et al., 2012; Nix et al., Ren et al., 2005; Sun et al., 2013; Taylor & Lawton, 2012; Wu & Sun, 2009; 강지현, 2016; 장현석, 2014a; 한보영·최재용·이운호, 2014; 황의갑·한성일, 2016).

다음으로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주민들의 지역 내 비율(concentrated disadvantage)이 높을 경우 경찰신뢰가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Lai & Zhao, 2010), 양자 간의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Nix et al., 2015). 한편, 외국인 변수의 경우 국가 수준 연구에서 경찰신뢰와 부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가 존재하며(Alalehto & Larsson, 2016),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이 좋지 않으면 경찰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정보성·이창배, 2018).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에서 경찰신뢰와 일관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령 변수였으며,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경찰신뢰가 높았다(Alalehto & Larsson, 2016; Cao et al., 2012; Jang et al., 2010; Kääriäinen, 2007; Lai & Zhao, 2010; Merry et al., 2012; Ren et al., 2005; Sun et al., 2013; Taylor & Lawton, 2012; 강지현, 2016; 장현석, 2014a; 정보성·이창배, 2018; 한보영·최재용·이운호, 2014; 황의갑·한성일, 2016).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제에 보다 순응하고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이병도, 2017), 청년층은 경찰을 독립성을 제약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고령자에 비해 경찰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Ren et al., 2005), 이외 성별, 소득, 혼인, 학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 변수들은 경찰신뢰와의 관계가 유의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연구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Ⅲ.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다수준 분석을 통해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2014년도 자료(최수형 외, 2015)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자료의 경우 경찰청의 전국 경찰서 통계 및 통계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통계를 결합하였으며, 지역수준의 분석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는 전국적으로 약 15,000여명의 응답치가 포함되었는데, 이 중 80여개 군 지역 자료의 경우 응답치가 평균 20명 미만에 불과한 점, 도시지역과 치안환경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지역자료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지 않은 지역, 경찰청 통계에서 오류나 결측이 있는 지역 등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의 관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통합하는 과정 등을 통해 일부 지역이 축소되는 과정을 통해 총 135개 지역에서 응답한 13,036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와 측정방식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과 측정항목 및 방식은 아래 <표 1>과 같다. 종속변수인 경찰신뢰의 경우 강지현(2016)과 유사하게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순찰, 신고대응, 범죄검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측정한 값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합산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개인수준의 독립변수로서 먼저 표현적 시각과 관련이 있는 지역유대와 집합효능감, 무질서 인식의 경우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한 항목들의 값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의 경우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의 측정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한편, 도구적 시각과 관련이 있는 범죄피해 변수는 이분형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범죄두려움의 경우 8가지 유형의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각각 측정한 값을 합

산하였다. 통제변수로서 성별과 연령 등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변수의 경우의 경우 대체적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의 측정방식을 활용하였으며 혼인 변수의 경우 배우자 존재에 관한 이분형 변수로 변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한편 지역수준 변수들은 범죄와 무질서 발생, 경찰활동, 치안환경 변수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범죄발생은 5대 범죄 발생건수, 무질서 발생은 무질서 관련 112신고 건수로 측정하고 인구 10만 명 기준 표준화된 수치의 로그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경찰활동 변수들은 지역경찰관 수, 5대 범죄 검거율, 통고처분과 즉결심판 건수,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 지출액 변수가 있는데, 이 중 검거율 변수는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인구 10만 명 기준 표준화된 수치의 로그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치안환경 변수들 중 유흥시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합산한 값, 공공장소는 공원과 다중이용시설을 합산한 값을 활용하였으며 자살률과 이혼율을 제외한 변수들은 인구 10만 명 기준 표준화된 수치의 로그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변수 개관 및 측정

변수	측정
경찰신뢰	1)순찰, 2)신고대응, 3)범죄검거 신뢰(각 5점 척도)를 합산
지역유대	이웃 교류와 원조, 참여 등에 관한 4가지 항목(각 5점 척도) 합산
집합 효능감	범죄신고, 피해자 지원, 예방순찰 등 3가지 항목(각 5점 척도) 합산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수준에 대하여 11점 척도 측정
무질서 인식	1)물리적 무질서(쓰레기, 조명, 방치된 건물 등 각 5점 척도값 합산) 2)사회적 무질서(기초질서, 청소년비행, 시비 등 각 5점 척도값 합산)
범죄피해	범죄피해 경험=1, 없음=0
범죄두려움	1)강도, 2)성폭력, 3)절도, 4)폭행, 5)손괴, 6)주거침입, 7)사기, 8)스토킹(각 5점 척도값 합산)
범죄와 무질서 발생	1)5대 범죄 발생건수 2)무질서 112신고건수
경찰활동	1)지역경찰 인력 2)5대범죄 검거율, 3)통고처분건수, 4)즉결심판건수 5)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백만원)
치안환경	유흥시설(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공공장소(공원과 다중이용시설), 기초수급자, 외국인, 자살률, 이혼율
응답자 개인특성	1)성별(여성=1), 2)연령대(10대-70대), 3)소득(월소득 구간), 4)혼인(배우자 존재여부), 5)학력(무학-대학원이상)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들의 개인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여성이 52.6%로 남성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50대(19.3%), 40대(19.1%), 30대(15.8%), 60대(13.7%), 20대(12.8%), 70대 이상(12.5%) 순으로 높았다. 소득은 월 100만원 미만이 62.5%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대(9.3%), 200만원대(8.2%), 400만원대(6.7%) 순이었다. 미혼, 사별, 이혼 등에 해당하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약 65%였으며, 학력은 고등학교(37.2%), 대학교(22.2%), 전문대(16.4%) 순으로 많았다. 또한 범죄피해의 경우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약 4%였다(표 생략).

개인적 특성 변수 외에 분석에 투입된 개인수준 및 지역수준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개인수준 변수들 중 종속변수인 경찰신뢰의 평균은 15점 기준 10.2점으로 중간 값 기준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역유대와 집합효능감, 삶의 만족도도 중간 값 기준으로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무질서 인식과 범죄두려움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한편, 지역수준 변수들은 5대 범죄 검거율, 이혼율 변수를 제외하고 인구 10만 명당 수로 표준화한 값을 산출하였다. 범죄 및 무질서 발생과 관련하여 5대 범죄 발생건수의 평균은 약 113건이며 최소 지역은 약 6건, 최대 지역은 약 630건으로 편차가 약 100배가 넘었다. 무질서 관련 112신고건수는 평균 5,500여건이 접수되며 최소 지역 및 최대 지역별 편차가 약 11배가 넘었다. 지역경찰관 수는 평균 71명이 배치되고 공공안전 및 질서예산의 경우 평균 약 33억이 지출되었는데 지역별 편차가 커 불균형이 심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찰자원에 기반한 법집행으로 5대 범죄 검거율의 평균은 약 68%이고, 통고처분은 평균 약 320건, 즉결심판은 약 94건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특성변수들을 보면 유흥업소와 공공장소는 평균 약 170여곳이 분포하며, 기초수급자의 평균은 약 2,700여명, 외국인의 평균은 약 2,200여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살률의 평균은 인구 10만명 기

준 약 28명이고, 이혼율의 평균은 인구 1,000명 기준 약 2명이었는데, 경찰자원의 경우와 같이 지역별 편차가 컸다.

〈표 2〉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경찰신뢰	10.2	2.1	3	15	5대범죄 발생	113.2	91.2	5.6	629.7
지역 유대	10.8	3.7	4	20	질서112신고	5571	2855	1797	20904
집합 효능감	9.8	2.3	3	15	공공안전예산	3310	4505	74	23469
삶의 만족도	7.3	1.5	1	11	지역경찰관	71	45	21	482
물리적 무질서	6.8	2.4	3	15	5대범죄 검거	.68	.09	.50	.99
사회적 무질서	6.8	2.2	3	15	통고처분	319	864	12	9035
범죄두려움	17.3	6.2	8	40	즉결심판	94	53	24	369
유흥시설	169	167	10	1305	외국인	2175	1867	309	10222
공공장소	177	149	6	847	자살률	27.9	5.9	10.5	43.1
기초수급자	2706	1425	591	8260	이혼율	2.3	.4	1.4	3.7

분석에 투입된 개인수준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경찰신뢰의 경우 신뢰도 계수가 .80 이고, 요인적재치의 범위가 .79에서 .84 사이로 수용가능하였다. 이외에 지역유대, 집합효능감, 무질서 인식, 범죄두려움 변수들도 신뢰계수가 최소 .73에서 최대 .93 이고 요인적재치의 범위도 .52에서 .89 사이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표 생략).

2. 상관관계 분석

개인수준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 인 경찰신뢰는 다른 변수들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유대와 집합효능감이 높을수록, 여성이거나 연령이 높고, 배우자가 있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경찰신뢰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 관계가 발견되었다. 반면, 무질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피해가 있거나 두려움이 높

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찰신뢰는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상관계수를 볼 때 지역유대와 집합효능감이 경찰신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중공선성 분석을 위해 VIF값을 산출한 결과 분석을 진행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지역수준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치안환경 및 수요와 관련이 있는 유흥시설이나 공공장소 등이 많을수록 범죄발생이나 무질서 관련 신고가 많고, 그에 따라 경찰관들이 많이 배치되어 범죄검거나 무질서 단속이 많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표 생략).

〈표 3〉 개인수준 변수 상관분석 결과

	경찰 신뢰	성별	연령	혼인	소득	학력	생활 만족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지역 유대	집합 효능감	범죄 피해
성별	.03**	1										
연령	.13**	.04**	1									
혼인	.05**	-.05**	.40**	1								
소득	.02*	.11**	.05**	.27**	1							
학력	-.07**	-.16**	-.55**	.01	.17**	1						
생활 만족	.14**	.00	-.11**	.10**	.10**	.21**	1					
물리적 무질서	-.12**	.02*	-.04**	-.06**	-.04**	-.04**	-.12**	1				
사회적 무질서	-.15**	.01	-.12**	-.04**	-.01	.06**	-.11**	.62**	1			
지역 유대	.29**	.07**	.35**	.15**	.01	-.32**	.05**	.10**	-.04**	1		
집합 효능감	.38**	-.01	.16**	.10**	.05**	-.10**	.09**	.01	-.04**	.51**	1	
범죄 피해	-.03**	.03**	-.01	-.01	.07**	.02*	-.01	.06**	.05**	-.01	.01	1
범죄 두려움	-.06**	.18**	-.09**	-.02*	.05**	.04**	-.07**	.29**	.36**	.02*	-.01	.08**

* $p < .05$, ** $p < .01$

3. 다수준 분석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기 전 우선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수만을 투입한 기초모형을 분석한 결과, 경찰신뢰의 분산 중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의 변량을 산출하였다. 그리하여 계산된 급내 상관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는 약 $.19(=0.9/0.9+3.78)$ 였으며, 이는 경찰신뢰의 분산 중 지역수준의 설명부분이 약 19%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다수준 분석의 적절성을 보여주며, 경찰신뢰에 관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에서도 15%에서 20% 사이의 급내상관관계수를 보고한 바 있다(강지현, 2016; 정보성·이창배, 2018).

그리하여 개인수준 변수들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경찰신뢰는 소득과 학력을 제외한 독립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유대와 집합 효능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무질서 인식이 높을수록, 범죄피해가 있는 경우, 범죄두려움이 높을수록 경찰신뢰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들 변수 중 집합 효능감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가장 높았고, 무질서 인식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 인식에 비해 사회적 무질서 인식 변수가 경찰신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높았다. 또한 범죄두려움에 비해 범죄피해가 경찰신뢰 감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경찰신뢰와의 관계를 보면, 여성일 경우와 연령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경찰신뢰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우도비 검정(likelihood-ratio test)결과 유의하였다.

또한 임의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개인수준 변수들과 경찰신뢰와의 관계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수준 변수들까지 투입한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다양한 지역수준 변수들 중에서 경찰신뢰와 유의한 관계가 발견된 변수는 공공장소와 자살률 변수였는데, 지역 내 공공장소가 많을수록, 지역의 자살률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들 변수들 외에 다른 지역수준 변수들의 경우 경찰신뢰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경찰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 분석결과

구분		전체	
		계수	SE
개 인 수 준	상수	6.30**	2.00
	지역유대	.08***	.01
	집합 효능감	.25***	.01
	삶의 만족도	.12***	.01
	물리적 무질서	-.08***	.01
	사회적 무질서	-.10***	.01
	범죄피해	-.18*	.08
	범죄두려움	-.01*	.00
	성별	.10**	.03
	연령대	.07***	.01
	배우자	-.17***	.04
	월소득	-.01	.01
	학력	-.02	.02
지 역 수 준	유흥시설	-.31	.25
	공공장소	-.56**	.21
	기초수급자	.39	.39
	외국인	.26	.27
	자살률	-.03*	.01
	이혼율	.31	.24
	5대 범죄발생	.25	.24
	무질서112신고	-.14	.62
	공공안전 및 질서예산	-.14	.17
	지역경찰	.02	.02
	범죄검거율	.71	1.00
	통고처분	.26	.21
	즉결심판	-.03	.02
Deviance		52072.73	

* p< .05, ** p< .01, *** p< .001

앞서 다수준 분석에서 범죄두려움이 경찰신뢰와 부적 관계를 가지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 활용한 범죄두려움 변수는 여러 종류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값을 합산한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경찰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탐색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물손괴나 사기 등 대물범죄 등을 제외하고 절도, 강도, 폭행, 성폭력,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찰신뢰와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 변수만이 경찰신뢰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다른 범죄들에 대한 두려움은 경찰신뢰와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분산팽창지수(VIF)의 범위는 1.83부터 3.35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분석에 활용한 많은 변수들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며, 범죄두려움이 경찰신뢰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에 범죄두려움이 포함된 모형과 제외된 모형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범죄두려움이 지역유대, 삶의 만족도, 무질서 인식, 범죄피해, 성별, 연령, 공공장소 변수와 경찰신뢰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경찰신뢰와 범죄유형별 두려움의 관계

변수	계수	표준오차	t	비고
상수	10.54***	.05	194.99	F=14.10*** R ² =.01
절도 두려움	-.04	.04	-1.22	
강도 두려움	-.01	.04	-.29	
폭행 두려움	-.05	.03	-1.62	
성폭력 두려움	-.10***	.03	-4.06	
침입범죄 두려움	.03	.03	.96	

* p< .05, ** p< .01, *** p< .001

다음으로 수준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연령, 지역유대, 집합효능감과 경찰신뢰와의 관계가 각각 지역의 자살률 변수에 의해 조절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유대와 집합효능감이 높을수록 각각 경찰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자살률이 낮은 지역보다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 감소한다는 것인데, 한편으로 지역의 자살률을 낮추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연령, 지역유대, 집합효능감과 경찰신뢰와의 관계는 지역수준의 공공장소 변수에 의해서는 조절되지 않은 차이도 발견되었다.

〈표 6〉 수준간 상호작용 분석결과

수준		경찰신뢰	
개인수준	지역수준	계수	표준오차
연령	자살률	-.01 ⁺	.01
지역유대		-.01**	.00
집합효능감		-.01***	.00
범죄피해		.01	.02
범죄두려움		-.01	.01
연령	공공장소	.04	.04
지역유대		-.02	.02
집합효능감		-.04	.03
범죄피해		-.40	.29
범죄두려움		.01	.02

+ $p < .10$, * $p < .05$, ** $p < .01$, *** $p < .01$

한편,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집단은 범집행에 냉소적 인식을 보이고 경찰에 대한 불만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Reisig & Parks, 2000; Wu & Sun, 2009), 과연 어떠한 요인이 낮은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종속변수인 경찰신뢰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고신뢰 집단(11점 이상) 저신뢰 집단(10점 이하)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여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는지 탐색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7>과 같은데, 먼저 공통적으로 고신뢰 집단과 저신뢰 집단에서 지역유대, 집합효능감, 삶의 만족도, 공공장소가 경찰신뢰와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특히 계수 값을 보면,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이 고신뢰 집단에 비해 저신뢰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집단별 차이점도 발견되었는데, 고신뢰 집단에서는 물리적 무질서 변수와 경찰신뢰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사회적 무질서 인식 변수가 경찰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저신뢰 집단에서는 물리적 무질서 변수가 경찰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사회적 무질서 인식 변수는 경찰신뢰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 이외에 저신뢰 집단에서는 범죄피해가 있을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경찰신뢰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경찰신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고신뢰 집단에서는 이들 변수들과 경찰신뢰와의 관계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경찰신뢰의 수준에 따른 영향요인 비교

구분		고신뢰(N=6,092)		저신뢰(N=6,944)	
		계수	SE	계수	SE
개 인 수 준	상수	9.90***	1.02	8.17***	1.26
	지역유대	.02***	.00	.04***	.01
	집합 효능감	.06***	.01	.13***	.01
	삶의 만족도	.03**	.01	.05***	.01
	물리적 무질서	-.01	.01	-.05***	.01
	사회적 무질서	-.05***	.01	-.02	.01
	범죄피해	.03	.07	-.17*	.08
	범죄두려움	-.01	.01	.01	.01
	성별	.03	.03	.05	.03
	연령대	-.01	.01	.03*	.01
	배우자	-.03	.03	-.02	.04
	월소득	-.01	.01	-.03**	.01
	학력	-.01	.01	-.03	.02
지 역 수 준	유흥시설	.01	.12	-.13	.16
	공공장소	-.24*	.11	-.31*	.14
	기초수급자	.26	.20	.02	.25
	외국인	.12	.13	.04	.17
	자살률	-.01	.01	-.01	.01
	이혼율	-.03	.12	.06	.16
	5대 범죄발생	-.01	.12	.03	.15
	무질서112신고	.36	.32	-.44	.39
	공공안전 및 질서예산	.03	.08	-.03	.10
	지역경찰	-.01	.01	.01	.01
	범죄검거율	.28	.50	.30	.64
	통고처분	.07	.11	.15	.13
	즉결심판	-.01	.01	.01	.01
Deviance		16479.12		23755.08	

* p< .05, ** p< .01, *** p<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법집행과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요약되는 경찰활동의 중요한 기반인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범죄나 무질서 발생, 경찰인력, 범죄유발 장소요인 등 국내의 치안환경에 대한 지역수준 변수를 분석모형에 반영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청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치안환경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탐색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출할 수 있는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결과 경찰신뢰에는 표현적 시각과 관련된 요인과 도구적 시각과 관련된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집합효능감 등 표현적 시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경찰은 신뢰제고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확보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경찰과 주민간 합동순찰이 경찰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김학범, 2015).

한편,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연구결과인 지역의 자살률이 높을수록 경찰신뢰가 감소하는 분석결과는 지역의 사회통합 수준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경찰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적 시각의 주장과 일부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수준 간 상호작용 분석결과에서 지역의 자살률이 높을수록 지역유대와 집합 효능감의 경찰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도 아울러 고려한다면, 지역의 자살률을 낮출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과업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렵고 사회전반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경찰차원에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증가하는 자살기도자에 대한 신속한 출동으로 구조 활동에 임하고 상담이나 치료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인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본에서 경제사정 악화로 지역사회 안전망에 점차 균열이 생기면서 범죄문제가 증가하고 경찰신뢰가 감소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장현석, 2014a) 앞으로 보다 강화된 공동체 치안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 작은 지역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황의갑, 2013).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무질서가 경찰신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활동이나 무질서를 유발하는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장소가 많은 지역에서 경찰신뢰가 유의하게 낮다는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아 범죄두려움이 높은 점이 경찰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박현수, 2018; 허선영·문태현, 2011). 또한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경찰의 순찰이나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경찰가시성이 부족한 점이 경찰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반대로 주민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경찰이 활동하는 모습이 노출될 경우 주민들로 하여금 주변 지역에 범죄 문제가 있다는 불안을 주어(Hinkle & Weisburd, 2008) 결과적으로 경찰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본 연구의 설계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후속 연구를 통한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도구적 시각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범죄피해가 경찰신뢰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한 탄력순찰이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활동이 지역에 맞게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이 주민의 집합적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야 한다(Tankebe, 2008). 또한 범죄두려움 요인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만이 경찰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경찰이 여성의 성폭력 범죄예방과 검거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경찰신뢰를 유지하거나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최근 전 국민을 놀라게 한 디지털 성범죄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사건에 경찰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야 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경찰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범죄피해, 물리적 무질서, 연령, 소득과 경찰신뢰의 관계가 유의한 반면, 경찰신뢰가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무질서만이

경찰신뢰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차별적인 경향이 확인되었다. 경찰신뢰가 낮을 경우 경찰의 법집행에 불만이나 냉소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Reisig & Parks, 2000; Wu & Sun, 2009), 경찰신뢰가 낮은 집단에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유의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맞춤형 경찰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특히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지역사회 변수들 분석에 투입하여 경찰신뢰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표현적 요인, 도구적 요인은 고려하였지만 부패나 절차적 정의 등 규범적 요인은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가 활용한 2차 자료에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분석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분석 자료가 전국의 도시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군 지역의 경우 제외되어 외적타당성에 일부 한계가 있고 특히 도시지역과 군 지역 주민들의 경찰신뢰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Sun et al., 2013; Taylor & Lawton, 2012)를 고려한다면 분석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수준 변수의 영향을 관찰하고 분석하기에는 다소 광범위하다는 한계도 지적될 수 있다(노성훈·조준택, 2014; 조준택·박지선, 2016). 이러한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는 적절한 연구설계와 자료분석을 통해 한국적 맥락에 맞는 경찰신뢰의 영향요인들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지현. (2016), 일반 시민의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 순찰, 출동, 검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8(5): 31-58.
- 김학범. (2015), 협력치안 활동이 경찰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 73-98.
- 노성훈·조준택. (2014), 지역사회 범죄, 외국인,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준분석, 형사정책연구, 25(4): 445-478.
- 노연상·임창호. (2017), 경찰 신뢰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과 중국 대학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6(3): 69-104.
- 박종훈·이경재·이성우. (2018). 서울 시민의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서울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도시연구, 19(4): 111-129.
- 박현수. (2018).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공간 분석. 형사정책연구, 29(2): 91-117.
- 배응규·김희재·권경오. (2009). 블록별 토지이용에 따른 강철도 범죄발생 특성 연구: 2006 년도 분당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0(4): 5-20.
- 유영현·신성식. (200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보, 22(2): 337-354.
- 이미정. (2013), 공공적 가치로써의 경찰 신뢰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경찰학논총, 8(1): 67-91.
- 이병도. (2017), 경찰신뢰도 궤적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9(2): 141-170.
- 이상원·송건섭. (2001), 국민의 경찰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3: 151-168.
- 이수창. (2014), 일선 경찰관 재량행위가 경찰조직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11(1): 83-103.

- 임창호·김영수. (2018), 외국인 밀집지역 내 거주 주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찰학논총*, 13(4): 153-183.
- 장현석. (2013),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2(2): 213-236.
- _____. (2014a),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결정요인: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의 비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1): 239-262.
- _____. (2014b), 경찰 신뢰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13(2): 311-340.
- 정보성·이창배. (2018), 경찰신뢰의 영향 요인에 대한 다수준적 접근: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2(3): 7-44
- 정진성·박현호. (2010).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항 회귀분석. *형사정책연구*, 21(1): 91-119.
- 조준택·박지선. (2016). 범죄율과 범죄두려움이 서울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17(4): 131-144.
- 최수형 외. (2015),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보영·최재용·이운호. (2014), 교류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3(2): 393-420.
- 허선영·문태현. (2011). 도시내 범죄발생과 범죄 두려움 위치의 공간적 차이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4(4): 194-207.
- 황의갑. (2013),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민들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대도시권 한인들 간의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12(4): 411-434.
- _____.한성일. (2016),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적· 도구적 요인: 한국과 몽골 시민들 간의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15(4): 317-342.

2. 국외문헌

- Alalehto, T., & Larsson, D. (2016), Measuring trust in the police by contextual and individual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6): 31-42.

- Cao, L., Lai, Y. L., & Zhao, R. (2012), Shades of blue: Confidence in the police in the worl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0(1): 40-49.
- Dietz, A. S. (1997). Evaluating community policing: quality police service and fear of crim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0(1): 83-100.
- Durkheim, E. (1897). 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English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Hawdon, J. (2008). Legitimacy, trust, social capital, and policing styles: A theoretical statement. *Police quarterly*, 11(2): 182-201.
- Hinkle, J. C., & Weisburd, D. (2008). The irony of broken windows policing: A micro-plac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order, focused police crackdowns and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6): 503-512.
- Jackson, J., & Bradford, B. (2009). Crime, policing and social order: on the expressive nature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0(3): 493-521.
- _____, J., & Sunshine, J. (2007).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A neo-Durkheimian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2): 214-233.
- Jang, H., Joo, H. J., & Zhao, J. S. (2010), Determinants of public confidence in poli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1): 57-68.
- _____, H., & Hwang, E. (2014),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Korean people: An expressive model versus an instrumental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2(4): 306-323.
- Kääriäinen, J. T. (2007), Trust in the police in 16 European countries: A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4(4): 409-435.
- Lai, Y. L., & Zhao, J. S. (2010), The impact of race/ethnicity, neighborhood context, and police/citizen interaction o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he poli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4): 685-692.

- Merry, S., Power, N., McManus, M., & Alison, L. (2012), Drivers of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police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 Management*, 14(2): 118-135.
- Nix, J., Wolfe, S. E., Rojek, J., & Kaminski, R. J. (2015), Trust in the police: The influence of procedural justice and perceived collective efficacy, *Crime & Delinquency*, 61(4): 610-640.
- Reisig, M. D., & Parks, R. B. (2000). Experience, quality of life, and neighborhood context: A hierarchical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police. *Justice quarterly*, 17(3): 607-630.
- Ren, L., Cao, L., Lovrich, N., & Gaffney, M. (2005), Linking confidence in the polic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Community policing can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1): 55-66.
- Sargeant, E., Murphy, K., & Cherney, A. (2014), Ethnicity, trust and cooperation with police: Testing the dominance of the process-based model,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1(4): 500-524.
- Shaw, C. R., & McKay, H. D.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 Skogan, W. G. (2009). Concern about crime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Reassurance or accountability?. *Police quarterly*, 12(3): 301-318.
- Sprott, J. B., & Doob, A. N. (2009). The effect of urban neighborhood disorder on evaluations of the police and courts. *Crime & Delinquency*, 55(3): 339-362.
- Stoutland, S. E. (2001). The multiple dimensions of trust in resident/police relations in Bost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3): 226-256.
- Sun, I. Y., Hu, R., Wong, D. F., He, X., & Li, J. C. (2013), One country, three populations: Trust in police among migrants, villagers, and urbanites in China, *Social Science Research*, 42(6): 1737-1749.
- Sunshine, J., & Tyler, T. R. (2003).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 society review*, 37(3): 513-548.

Tankebe, J. (2008), Police effectiveness and police trustworthiness in Ghana: An empirical appraisal,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8(2): 185-202.

Taylor, R. B., & Lawton, B. A. (2012), An integrated contextual model of confidence in local police, *Police Quarterly*, 15(4): 414-445.

Van Craen, M., & Skogan, W. G. (2015), Trust in the Belgian police: The importance of responsiveness,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2(2): 129-150.

Wilson, J. Q., & Kelling, G. L. (1982).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249(3): 29-38.

Wu, Y., & Sun, I. Y. (2009), Citizen trust in police: The case of China, *Police Quarterly*, 12(2): 170-191.

The Factors affecting Confidence in the Police in South Korea: A Multi-level Analysis focusing on Neighborhood Context.

Cho, Joon-Tag*

Despite many studies regarding the determinants of confidence in the police have been conducted, there are relatively few studies in South Korea that take into account the variables of the policing and the neighborhood structural context variables. In order to fill this gap, the current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police activities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upon confidence in the police by combining the Crime Victimization Survey data from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with the regional level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Statistics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cohesion, collective 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onfidence in the police, while perceived disorder,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had a negative effect on confidence in the police. Regarding fear of crime, only fear of sexual violence had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confidence in the police. In terms of regional variables, suicide rate and the number of public places showed negative relations with confidence in the police. Suicide rate moderated bot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hesion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police confidence. In addition, as a result of separating the data into two groups as high confidence and low confidence in the police,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confidence in the police were found. The results indicated the influence of expressive and instrumental factors on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the necessity to reinforce community policing.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 Police HRD Institute, Instructor

❖ key words: confidence in the police, neighborhood context, crime and disorder, policing, multi-level analysis